

도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앞장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 추진계획 수립... 학교 현장의 실질적 업무경감 체제 구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21년 학교업무 최적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은 김승환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교육행정 업무를 간소화·표준화·정비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도교육청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교육지원청 학교업무 지원 기능 강화 ▲단위

학교의 업무 최적화 지원 ▲일하는 방식 및 직장문화 개선 등을 4대 축으로 한 1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정책사업 정리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교육정책사업을 진단·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단을 의견수렴을 통해 상향식 정책 결정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학교 내부 공문서량 감축을 위해 학교 접수·생산 문서를 분석하고, 보고 공문 및 내부기안 문서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2019년 도입한 학교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이 올해는 모든 교육지원청

으로 확대된다. 교원 호봉재조정·방과후학교 운영 업무 지원 등과 같이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도 반영한다.

감사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공립고를 대상으로 비대면 감사원 시범 운영하고, 화상 회의 및 동영상 제작을 활성화한다.

단순·전달 중심의 집합회의(연수)는 동영상으로 제작·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출장을 줄이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공문서 감축 평가제, 교무학사 및 학교행정 업무 길라잡이 활용,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단 운영, 학교 시설공사 지원단 운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유레카 활용 등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정책사업 및 행정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체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청소년안전망 실행위 개최

19일까지 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접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17일 '2021년 제1차 전주시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를 줌(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전주시청소년안전망에는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등 20여 개의 청소년 유관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전주시청소년안전망의 중점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청소년안전망 공동사업을 통해 20여 개의 청소년 대상 기관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센터는 올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과 자기주도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388청소년지원단의 현안이 담긴 리플릿을 제작·배부해 위기 상황 시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

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만9~18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를 등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사업에 참여하면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jjsangdam.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혜선 센터장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적합한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힘을 쓸 예정"이라며 "실행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협력해 전주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주 YWCA가 전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학위수여식

22일 축소 개최

신입생 입학식은 비대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오는 22일 진수당 기인홀에서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축소 개최와 취소 등을 놓고 고심해 왔던 전북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최근 축소 개최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기 학위수여식에는 대학 내부 보직자들과 각 학위별 대표자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되고, 전체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는 건지광장과 중앙도서관 등 대학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해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대학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2월 말 열렸던 입학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는 열지 않고, 단과대학이나 학부별로 신입생 환영행사를 비대면으로 자율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본부는 신입생들이 대학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대학생활 소개 동영상과 e-book 등을 사전 제작해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했다.

5분 내외의 학교 선배 인터뷰 형태로 제작된 대학생활 소개 동영상은 장학 및 학자금 제도, 생활관 및 도서관, 아시아대학 교육 연합(AUEA) 등 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한편, 이 동영상은 대학 홈페이지(www.jnu.ac.kr)에 별도 배너로 탑재해 15일부터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 현대상호중공업 협력사와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7일 전남의 현대상호중공업에서 현대상호중공업 협력사 협의회와 글로벌 인재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두진 협의회 부회장, 김원곤 협의회 사무국장과 이효숙 국제교류원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전주비전대학은 졸업 예정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상호중공업 계열사들이 요청한 주문식 교육을 진행해 왔다. 도장, 용접, 전기 분야로 구분해 입학 후 바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문두진 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7일 전남의 현대상호중공업에서 현대상호중공업 협력사 협의회와 글로벌 인재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을 통해 전주비전대학교와 현대상호중공업 협력사들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비전대학교에는 8개국 250여명의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 대상... 6771억원 들여 개축·리모델링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낡고 노후화된 전북지역 학교가 첨단 교육 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17일 도교육청은 낡은 건물의 학교를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노후건물을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환경을 접목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을 계기로 전통적

기존 교실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건물 에너지 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 시설 복합화 등 교육부에서 제시한 핵심요소를 반영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사업기회부터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원은 2021~2025년도까지 총

6,7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 30%·지방비 70%로 분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TF를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 대상 학교 선정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후한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종합적 인프라가 반영된 미래학교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호원대,심리사회적 지지 양성교육 후 활동 펼쳐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대학원적자에서 주관하는 '심리사회적 지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수료증을 받은 이후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오는 2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교육대상자는 생활관 혹은 비생활관 학생 중 HK예방단으로 발탁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재학생의 정서적 고통을 이해하고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 교육수료증은 중요 경력사항으로 포토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 위기관리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로 두 번째다.

교육 내용은 ?위기사건과 심리적 지지, ?스트레스와 대처, ?상실과 애도, ?지역사회 중심의 심리적 지지, ?심리적 응급처치와 지지적 의사소통 등이다.

심리사회적 지지 양성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은 "구체적인 활동구성과 적절한 예시가 매우 인상 깊었다", "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교육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미영 진로심리상담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수선했던 2020학년도에 위기 관리 심리사회적 지지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재학생들에게 시기 적절한 Self-care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